



2014년 3월 24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3. 18. 17:00	시청률	0.040

【총 평】

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국회 통과 못해 유감", '사립탐정' 등 신직업 40여 개 육성, 외국기업에 카지노시장 개방..."안전장치 마련" 등의 정책소식과 <라이브 이슈-이제는 평창이다 동계올림픽 준비, 현황은?>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창의교육, 대학의 길>이 이어졌음. 소치 동계올림픽과 소치 장애인올림픽이 끝난 시점에 라이브 이슈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점검해보는 기획은 시의 적절했음.

【구성 및 내용】

박 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국회 통과 못해 유감"을 첫 소식으로 전했으며, 국무회의에서의 강조 내용도 전달해 집중력 있었음. 이날 국무회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와대와 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한 영상 국무회의로 관심을 끌었음. 원자력방호법의 국회 계류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려면 그런 사태가 빚어진 원인과 왜 문제인지도 좀 더 명확히 짚어줄 필요가 있었음. 대통령 발언 등으로 언급이 되기는 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기자 멘트로 정리하는 수준은 없어서 아쉬웠음.

<라이브 이슈>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진선 위원장과 함께 4년 후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과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음. 진행자의 질문이 다소 단편적인 느낌이었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음.

<창의교육 대학의길>은 건양대학교 김희수 총장이 출연했는데, 대학 관계자나 학생이 함께 출연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참고사항】

소치 장애인 올림픽, 소치 동계 패럴림픽 등 같은 사안에 대한 자막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임.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3. 18. 18:15	시청률	0.007

【총 평】

한 가지 정책 주제를 집중적으로, 심도깊게 다뤄주어 정보차원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이를 예능프로그램, 팟캐스트 형식으로 재미도 주는 좋은 프로그램임. 그 동안 개그 프로그램이나 개그 유행어만을 패러디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광고나 드라마 등 영역을 확대해 보다 흥미롭게 시청하고 있음.

【구성 및 내용】

오프닝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을 깔끔하게 정리했음. <임평순이 또 댔다!>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했음. <행정 개그를 아시나요?>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락처를 소개한 점이 돋보였고, <정책은 노래를 타고>와 <미녀와 야수의 SNS 정책 대결>에서도 앞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음.

【참고사항】



<정책은 노래를 타고>에서 출연자가 해골 마크가 그려진 옷을 입고 출연해 이모티콘과 흐린 화면으로 처리해 눈에 거슬렸음. 출연자의 의상선택에 신중했어야 함.

방송심의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는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프로그램	희망로드 세계로		
방송일자	2014. 3. 18. 20:00	시청률	0.026

【총 평】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세계 각국의 불우한 현지인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자랑스런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이 감동을 주었음. 글로벌 시대와 한류라는 트렌드를 십분 살려,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음.

가난한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사회가 이제는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음.

【구성 및 내용】

<복도 한 칸에서 합창연습을 하는 신입단원들>, <현지 오디션의 지원을 위해 달려온 단원들>, <뛰어난 음감의 '다만나'를 영입하기 위해 부모를 찾아간 '김재창' 단장> 등, 프로그램의 흥미와 긴장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의 삽입이 흥미와 집중도를 높여주었음.

후반부에서 <아이들의 여권을 만들러 갔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김재창' 단장>과 바로 이어진 2부 예고영상도,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2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봄.

합창단원들의 노래 'I have a dream', '기찻길 옆 오막살이'를 부르며 합창 연습을 가는 아이들, '김재창' 단장의 합창지도, 현지 오디션, 아이들 여권을 만들기 위해 푸네市 여권사무국에 들른 김단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흥미진진함은 물론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특히 <한국의 동요를 부르는 인도 아이들의 모습>에서 친근함과 함께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음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더욱 우리의 정서에 와닿을 수 있었다고 봄.

【참고사항】

기적을 부르는 천사들, 인도 바나나 합창단의 경우 1부와 2부로 방송되는데, '1부 - 푸네시에 울려 퍼지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등으로 각 부별 서브 타이틀이 삽입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3. 19. 11:00	시청률	0.013

【총 평】

희망의 새 시대라는 타이틀에 부합하는 희망적이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주는 코너의 부재가 아쉬움을 주고 있음. 특히, 시작부분의 이 시각 주요뉴스의 경우 오전 9:00, 10:00, 12:00, 오후 13:00 14:00 15:00 등과 진행자 및 포맷 등이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 도입부부터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고 중복감과 기시감을 주고 있음.

【구성 및 내용】

이 시각 주요뉴스를 비롯해 이 시각 국제뉴스, 국민리포트, 여기는 세종, 맛있는 날씨 등 두 메인 MC가 진행하지 않는 코너들이 대다수를 차지해 프로그램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부족함은 물론 MC들의 존재감도 줄어들고 있음.

소치 장애인올림픽 선수단 귀국..."값진 경험"과 <국민리포트>의 "제주 완전한 봄...꽃 활짝" 및 "인천지하상가, 외국인 쇼핑명소로 뜬다" 등 시의성과 의미를 가진 참신한 아이템 선정이 눈에 띄었음. 단, <집중인터뷰>의 "저출산 극복, 향상된 보육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여기는 세종>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은, 제한된 시청층에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해 자칫 관심이나 흥미를 집중시키지 못할 소지도 있었다고 보여짐.

프로그램		신문화별곡, 어울림	
방송일자	2014. 3. 19. 20:00	시청률	0.040

【총 평】

신문화별곡, 어울림은 최근, 최신의 문화현상을 조명하는 concept으로 새로 편성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는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파티문화의 현장을 소개해 흥미로웠음.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아 정돈되지 않고 산만하게 흐르는 느낌이었음.

【구성 및 내용】

공연과 놀이를 함께 하는 공연파티, 서울문화예술직업전문학교의 파티동아리, 힐링 포트락 파티, 문화와 예술과 함께하는 블라블라 문화파티의 현장을 이어서 소개했는데 다양한 파티형식들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음. **요즘 파티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 대중화되는 이유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의미를 분석하고 짚어주는 수순이 있어야 했는데 현상나열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음.**

【자막 개선점】

자막 표기에 있어서 '너무' 다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므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등은 잘못 사용한 용례임. 재밌다, 보람차다, 좋았다 등 긍정적인 단어에는 '매우' 등의 부사가 사용되어야 함. '소문이 났더라고요'는 '~났더라고요'가 옳은 표현임. 인터뷰 내용을 자막 처리함에 있어서 문장구사의 정교함이 떨어졌음.



프로그램	한류! 세상과 통하다		
방송일자	2014. 3. 20. 11:56	시청률	0.029

【총 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한식을 새롭게 해석하여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요리법을 발견해가는 과정과 세사람의 요리경연이 펼쳐지는 내용이 소개되었음. '한류'를 주제로 외국인의 한식체험이라는 리얼 다큐이면서 동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경쟁 시스템으로 진행해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었음.

【구성 및 내용】

불고기 요리법을 고민하는 미국인 가브리엘 다이씨와 새로운 비빔밥을 만드는 우즈베키스탄의 울다세와 샤홀로, 해물잡채 만들기에 도전한 이탈리아 라우라 디 누치씨의 모습이 소개되었음. 각자의 생활속에서 요리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인 친구나 전문가에게 도움 받는 내용들이 작위적인 느낌 없이 무척 자연스럽게 소개되어 집중력 있었음.

특히,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또 소통하며 자신의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프로그램 제목 <한류! 세상과 통하다>가 실제적으로 공감되었음.

출연한 3명의 외국인들이 한국말 의사소통도 잘 되고 요리 준비과정에 있어서 소박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꾸밈없이 드러내 보여줘 정감가고 흥미로웠다.

【참고사항】

이 날 방송된 <新한식의 탄생>편은 앞서 방송되었던 1, 2편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도입부분에서 간략한 앞부분 설명과 세 사람의 미션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면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력이 더 높아질 것 같았음.

프로그램	이상벽의 TV 시간여행		
방송일자	2014. 3. 21. 14:05	시청률	0.000

【총 평】

'유행 따라 패션 따라'라는 제목에 맞게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 패션의 변천에 대하여 현대와 과거를 오가면서 개화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유행 변천사를 풍부한 자료화면과 인터뷰로 전해주어 매우 흥미로웠고 정보가치도 높았음.

【구성 및 내용】

신진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병문 남성복 디자이너를 통해 우리나라 패션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음. '동대문 패션 비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마대천 사장을 통해 우리나라 봉제기술의 변천사를 자료화면과 함께 잘 조명했음.

'종로양복점'과 '한국 현대 의상 박물관'을 통해 우리나라 패션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이상벽씨가 "패션은 정치, 경제, 문화가 함축된 '시대의 거울' 이라며 패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프로그램을 끝낸 구성이 좋았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3. 21. 16:05	시청률	0.006

【총 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기 수석부의장 김현욱씨가 출연해 <도약의 길, 통일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음.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 출연자가 어떤 국내외적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펼쳤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대담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음. 초반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강의 일색으로 독일의 통일, 현재의 북한 상황, 자유주의 규범 등 '그 때 그 사람'이라는 프로그램 제목과는 concept 이 맞지 않는 흐름이었음.

출연자 선정부터 프로그램 성격에 맞도록 고심해야 하지만, 같은 출연자라도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성패가 갈린다고 볼 때 진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방방곡곡 국민 행복 리포트	
방송일자	2014. 3. 21. 20:00	시청률	0.063

【총 평】

<마을> 및 <사람> 등 2개의 메인 코너와 <우체통>의 1개의 서브 코너가 점차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잘 살려가는 등 안정감 있는 구성 및 아이템 선정이 돋보임.

테마에 맞는 현지 인물들을 전향적으로 활용, 현장감이나 친근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기획 및 구성이 프로그램을 보다 체감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함. 초기의 다소 어색하던 현지인물의 내레이터化도 한층 안정화되어 가는 느낌임.

【구성 및 내용】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떠난 후 쇠락해 가던 '정읍 대흥리' 마을]이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문화마을]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시종일관 흥미롭고 몰입도 있게 잘 그려내었음.' <사람>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조 경곤/고수'의 국악사랑을 내레이터인 '김 명남/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시선으로 담백하게 잘 담아내었음.

단, <우체통>의 경우 <마을>과 장소상의 공통점을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임. 별도의 주제를 찾기보다는, SBS에서 방영했던 '고향에서 부치는 편지'처럼 타이틀 그대로 <우체통>이라는 소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

프로그램		KTV 특집 서희의 심바람 콘서트	
방송일자	2014. 3. 22. 15:10	시청률	0.105

【총 평】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인 <서희의 심바람 콘서트>는 시청자들에게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제목이 주는 기대에 비해 너무 성의 없었음. 무대를 비롯해 음향, 화면, 진행, 방청객 모두 적절한 수준을 넘기지 못한 미흡한 방송이었음.

'서희'라는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가수를 메인으로 한 트로트 성향의 음악프로그램이 KTV의 위상과 정체성에는 걸맞지 않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MC의 진행스타일도 퀄리티가 있거나 남녀노소 모든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친근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음.

【구성 및 내용】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서브-타이틀로 진행된 1회의 경우 동명의 트로트 노래를 부른 '이상번'이라는 가수가 메인으로 출연을 했었고, 이번 2회의 경우 역시 [유쾌 상쾌 통쾌]라는 곡을 부른 트로트 가수 '소명'이 메인으로 출연했음.. 초대가수 '소명'이 [20년 무명생활을 이겨내고 인기가수로 자리매김한 인생 역경]을 설득력 있게 들려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한 점이 눈에 띄었음. 단,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등의 과장된 MC 멘트는 듣기에 거북한 느낌을 줄 소지가 있었음.

'병원'을 찾아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일산병원] 같은 일반병원보다는 {노인요양원}이나 {지방 요양시설} 같은 장소를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